

남원시 기초수급자 관리 만전

올해 7월 맞춤형급여제도 시행 후 수급자 수 5,951명 집계 10% 증가

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올 해 7월 기준 5,9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5,475명 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일 년 만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이에 발맞춰 증가한 수급자의 수만큼 수급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에 2차례 상·하반기의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공적·금융자료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6개월 반영시차로 인해 급여 환수 및 민원인 불편사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 해 1월부터 상·하반기 확인조사와 더불어 조사주기를 1개월로 하는 월별(반주기) 확인조사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단주기 확인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

여 수급자이다.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지방세 정보, 국세청 종합소득,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 총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반영하여 복지급여수급자의 지원 자격을 관리 중에 있다.

남원시는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525건의 단주기 확인조사결과에 따라 그 중 자격 탈락 대상 95가구에 대해서는 소명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지원 등) 및 민간지원 등의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자에게는 보장종지와 급여 환수 조치를 취했다.

또, 10월 시행될 2016년 하반기 확인 조사를 대비하여 복지대상자 가구 구성원과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를 활용해 가족관계등록부 410건, 주민세대원 805건, 인적변동 1건의 가구원 변동사항(출생·사망, 혼인·이혼, 세대분가·합가)을 사회보장시스

템에 일괄 파악하고 적용하는 인적정보를 7월에 마무리하였다. 가구 및 부양의무자 추가, 사제 등 변동사항 정비결과를 수급자 통합관리에 즉시 반영하였다. 추가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대해서도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등록 등 조치를 수행하였다.

2016년 남원시 복지예산은 1,300억여 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복지예산 927억 원 대비 28%가 증가된 수치이다.

증가된 복지예산을 적시적소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기존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다각도의 복지대상자 자격정비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속적인 수급권자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수급권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자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황숙주 군수, 가뭄피해 현장 긴급 방문

농민들의 애로 사항 청취·대책 방안 등 논의

“순창 강수량이 전년 대비 61%수준인데 가뭄 피해는 없습니까?” 황숙주 군수가 지난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를 가뭄피해 상황 점검으로 시작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와 소득작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복흥과 삼치면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군수는 즉각 가뭄피해 현장 방문을 지시했다.

황 군수가 지난 29일과 30일 삼치면과 복흥면 폭염과 가뭄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이날 간부회의 석상에서 가뭄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바로 현장을 방문하는 이례적 행보로 폭염과 가뭄으로 큰일이 큰 농민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단을 대동한 현장방문이었다.

이번 방문은 복흥면 자포마을과 덕흥마을 구암사 인근, 삼치면 반산리 사기점 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

복흥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인삼 잎갈기가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한 인삼밭 등을 방문했다.

삼치면에서는 최근 농가 소득작물로 재배가 확산되고 있는 오미자 피해 현장을 집중 방문했다.

황 군수는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황 군수는 “올해 이례적 폭염과 긴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커져 가고 있다”면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해 재해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다 항구적 폭염과 가뭄대책을 위해서는 점적시설과 대형관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폭염일수가 20일 이상 이어지고 있고 최근 2개월간 강수량은 전년 대비 61%수준에 그치고 있어 오미자, 사과 인삼, 복분자 등에 폭염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까지 43,472㎡에 피해 상황이 접수된 상황이다.

군은 9월 2일까지 가뭄과 폭염 피해를 접수하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항구적 폭염과 가뭄피해를 줄이



황 군수가 지난 29일과 30일 삼치면과 복흥면 폭염과 가뭄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기 위해 관정 설치 등 다양한 가뭄피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갈색날개매미충 적기방제 현장 홍보

10일 간격 2회 적용 약제 사용

임실군은 최근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의 밀도를 줄이기 위해 서식 습성을 분석하고 적기 방제를 위한 현장 홍보지도도 활동에 나섰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산림이 인접한 과원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부화시기인

5~6월 높은 온도와 적은 강수량으로 부화밀도가 증가하고 자연치사율이 낮아 증식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림과 농경지를 오가며 서식하고 마땅한 천적이 없는 것도 밀도 증가의 원인으로 밝혔다.

7월 중순경 성충으로 우화하는 갈색날개매미충은 줄기가 연하고 수액이 되는 새순의 즙액을 흡즙해 영

양불균형을 초래하고 배설물로 그들을 증상을 일으키는 등 농작물에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8월에서 9월 사이 성충은 어린 나뭇가지 속에 20여개의 알을 낳아 암수분 공담이 중단되거나 약해져 다음해 결실량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된다.

이에 따라, 부화 직후인 5월 중순과 산림기인 8월에서 9월이 적기 방제 시기이며, 10일 간격으로 2회 적용 약제를 사용하고 마을 단위로 동시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놀이·모험·개방공간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읍 월곡리에 소재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듬이누리어린이집 부근에 ‘어린이 생태놀이터’를 조성했다.

군은 올해 환경부 생태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4,000㎡(1,200평)의 ‘어린이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게 됐다.

오는 9월 9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놀이터는 아이들기 휴, 모래, 나무 등

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 모험공간, 개방공간 등 즐거운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놀이공간에는 조팝놀이대, 나무그늘, 나무시소, 케이볼카, 모험공간에는 미로공원, 토굴, 언덕오르기, 개방공간에는 나무그늘사다리, 잔디구장 등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체험형 놀이공간으로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수목 식재로 나무그늘 확대와 나무의자, 모정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가족, 주민들이 모여 자연과

의 친밀감, 정서적 안정감, 신체적 건강성을 되찾는 힐링의 공간으로 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큰 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놀이터 조성지는 사회복지 시설지구로 지정(면적 6,934㎡)된 지역으로 2013년에는 고창 보듬이누리가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90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고, 2015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 하루 평균 100명에 이르는 어린이가 센터를 찾고 있어 이번에 조성된 ‘어린이 생태놀이터’와 함께 명실상부한 지역 아동복지타운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특산물 활용 푸드테라피 개발

장계탕·복분자 장어 비빔밥·떡갈비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한 먹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30일 (재)베리(바이오)식품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박우정 고창군수,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담당자와 업무관계자, 푸드테라피 참여업체 11개소, 음식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한 푸드테라피 개발 메뉴 최종보고회와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번 ‘푸드테라피 메뉴개발·리뉴얼 용역 사업’은 군과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수행하는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의 지원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개발된 여러 메뉴는 지난 시식품평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한 단품메뉴 6종(새콤달콤 장어 삼합, 장계탕, 복분자 장어 비빔밥, 매콤 장어 볶음, 장어 사브사브, 복분자 장어 떡갈비)과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

는 체험메뉴 3종,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라는 의미의 정성미코스 4종의 코스메뉴(정려에 좋은 정력코스, 성장기 어린이에 좋은 성장코스, 피부미용에 좋은 미인코스, 작은 양으로 정갈하게 차려진 소담코스)를 선보였다.

고창 복분자·풍천장어를 활용해 개발된 음식은 지역의 특색 있는 푸드테라피 대표 먹거리로써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개발된 메뉴를 활용하여 1개 업체가 참여했고 9건을 참여업체에 보급했으며 11개 참여업체가 메뉴 리뉴얼을 진행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최고의 건강식품인 고창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한 요리보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즐기고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발된 음식이 지역 향토음식으로 인기를 얻고 농가와 업체가 모두 공감하는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 실시

전주 열린병원과 연계 마을 순회

순창군은 오는 9월 5일부터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주 열린병원과 연계해 각 마을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혀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검진대상은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 순창군 전체 주민으로 검진항목은 신체계측, 혈액검사(간기능,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빈혈등),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진 등 이며 암검진의 경우, 위암·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짝수·홀수 출생년도 구분없이 1년 1회 검진이 해당된다. 또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순창군보건의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상담 및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 순회건강검진은 오는 9월 5일 적성보건지소를 시작으로 9월 9일 인계보건지소, 9월 20 순창군보건지소, 21일 유동보건지소, 22일 풍산보건지소, 23일 구립보건지소 26일 팔덕보건지소, 27일 복흥보건지소, 28일 동계보건지소, 29일 삼치보건지소, 30일 금과보건지소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검진 후 암 발견 시에는 최대 3년간 암 의료비 일부가 지원된다.정원보건지소로원장은 “이번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은 군민들이 마을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전체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 군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만남 KBS 이동봉사

임실 군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만남 KBS 이동봉사’가 내달 2일 군민회관에서 열린다.

KBS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동 봉사는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봉사단체가 방문해 한방진료부터 치과치료, 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이미용, 피부관리, 전기시설 보수, 중식봉사까지 다양한 건강증진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은 의사 3명 등 총 6명의 인원이 참여해 한방진료 및 처방을 실시하고 전주 비전 대학교 학생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은 피부관

리, 이미용, 장수사진, 전기시설 보수 등의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평화 미주치과의 치과진료나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동맥경화, 혈액검사를 비롯한 전북도 직십사사의 500인분 중식봉사는 어르신들의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봉사는 건강부터 생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부스가 운영돼 군민의 아픈 곳을 치료하고 어려운 곳을 끊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30일 경운기 야광반사제 및 원동기 안전도 제공 행사에 참여하여 구립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어르신 대상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행사에 맞추어 최근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해 설명했고, 농기계 뒷면에 반사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퇴색되어 표시가 나타나 않을 경우 야간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선제적인 사고 방지가 필요한 만큼 야광반사지를 부착하고 안전도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최규운 서장은 “이륜차등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농촌지역 어르신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도로시설물 특별 정비

남원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도변 제초작업 등 각종 도로시설물 특별 정비를 9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내 진입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연결도로를 포함 총 55개 노선 418.9km에 대해 도로보수인 12명과 덤프 3대를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추석 맞이 도로정비는 도로포장의 파손 및 변형여부 △구조물의 파손, 집하 여부 △안전시설 및 배수관로 정비 △도로 비탈면 낙석 제거 △도로표지 정비 및 불법정용시설물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며,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한편, 남정식 건설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향우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도로 유지관리를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경찰, 농축산물 도난 대책회의

임실경찰서(서장 이후신)에서는 최근 분서 계장과 치안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확기 농·축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확기 농·축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실시와 농촌마을 방범 순찰, 심야 감문검색과 함께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농기계와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 자리에서 양희중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농민들이 일년 내 땀흘려 가꾼 농산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간 빈집발사 예방 순찰, 심야 감문검색과 함께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농기계와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